



김민석 국무총리,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상황 점검

- 지방선거 시기에도 지방정부의 집중력 유지 당부 -
- 다음 주 2차 현장점검 등 통해 보완사항 논의 -

□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6일(목) 오후, 여수세계섬박람회(이하 ‘섬 박람회’) 개최를 5개월여 앞두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개도의 부행사장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다.

* (참석) 행안부 차관, 국토부 교통물류실장, 문체부 관광정책실장,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, 전남도지사 권한대행, 여수시장 권한대행, 섬박람회 조직위원회 민간위원장·사무총장 등

○ 이번 방문은 전남·광주 통합 이후 이루어지는 첫 국제 행사인 섬 박람회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함과 걱정이 있고,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정부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
□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수엑스포장 컨벤션센터에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준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박람회의 기획 의도와 시설 건립 추진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였다.

○ 김민석 국무총리는 “박람회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”고 강조하였으며, 조직위는 개도와 금오도를 중심으로 “인류 공동의 과제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논의하고 섬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 하는 행사”라고 설명하였다.

○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체 시설 건립과 부지 조성상황 등 전체적인 공정률과 관련 교통 대책 등을 점검하며, 7월 말 준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다.

* 전체 공정률 59%(기반시설 78%, 랜드마크 45%, 전시관 34% 등)

-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선을 타고 부행사장인 개도로 이동하여 섬어촌문화센터 등 부행사장 조성현장을 방문하고 개도의 관광컨텐츠 및 숙소, 식당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점검했다.
- 김민석 국무총리는 “섬 박람회 는 여수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제 행사로서 여수시가 주도성과 책임감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”며, “여수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더 집중력을 갖고 미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- 김민석 국무총리는 “오늘 점검은 전체상황을 듣기 위해 왔다”며, “다음 주에 한 번 더 현장을 찾고 더 보완될 부분이 있는지 논의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김병준 (02-2100-2092)
		담당자	사무관	이규빈 (02-2100-2192)
			사무관	허경도 (02-2100-2095)

